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 3:4)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Ŭ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종현 편집국장: 조순근

2000년도 전액장학생 후보자 선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현교회가 천국입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매년마다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다. 도서관학회 주관으로 선발되는 2천원도 전액장학생 후보자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은 6월 24일(토) 오전 9시이며, 장소는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이다. 지원자들은 반드시 오전 8시 45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필기시험 과목은 ① 성경 ② 영어 ③ 논술이며 ④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교회가 천국입문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입인만큼 선발을 담당하는 이들이나 장학생으로 지원한 후보자를 모두 기도하며 임해야 할 것이다. ‘네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를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 2)

▽ 충현교회 천국입문 모습



입양가족 초청 민박을 원하는 가정 신청바랍니다

교회는 해외 입양 및 입양가족을 초청하고자 하여 민박 가정을 신청 받는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은 7월 8일(토) 오후 3시부터 다음날인 9일(주일)까지로 1박 2일이다. 초청 가족은 19가정 정도 61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356번)으로 문의 바란다.

평신도 선교사 훈련

지난 6월 9일 경기도 화성군 월곶리에 소재한 총회선교센터에서 평신도 선교사 후보생 67명이 참석하여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밤 9시부터 시작된 강의를 통해 선교사의 소명과 자질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 두레 마을과 제암리 교회(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위치)를 견학하였다. 이번 수련회를 끝으로 지난 토요일(17일)에 2천원도 1학기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종강하였다.

2000년도 2차 단기평신도 선교사 모집

수단, 수단, 우간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가이아나

선교회에서는 2천원도 단기평신도 선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파송 가능한 수단, 수단, 우간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가이아나 지역이다. 파송 일시는 2000년 12월에서 2001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파송 인원은 15명 이내로 각 나라별 2.3명 정도가 선발될 예정이다.



▲ 단기평신도 선교사 사역모습

파송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 선교에 소명감이 투철한 자 ② 본 교회 LMTC 훈련을 받고 총회 단기평신도 선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한 자 ④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컴퓨터 교육 사역, ⑥ 테크닉 교육 사역, ⑦ 미용 사역 등등이다.

제출 서류는 ① 단기 평신도 선교사 지원서 ② 단기 평신도 선교사 지원동기서 ③ 이력서 ④ 자기 소개서 ⑤ 사진 4매 (여권용) ⑥ 추천서(교구장 및 교구 지도 목사) ⑦ 종합검진표 등이다. 제출 마감일은 7월 9일(주일) 오후 6:30까지이며 면접일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로 통지한다.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로 하기 바란다.

성령이며, 이 땅을 하나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번 주는 모든 장소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단어가 토로되어지는 한 주간이었다. 더군다나 이번 회담은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상처가 있는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의미상 있었다. 모든 신문들마다 맨 앞 두 장 정도의 만화를 게재하며 부각시켰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모처럼 실례임으로 한 주간의 살았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키고 들뜨게 하는가?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성취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민족의 화합인가? 그런 결론 아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스리심이 있다. 이 땅에서 벌어진 민족의 전쟁과 분단의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계이다(삼상 17:47, 호 1:6). 민족의 교회가 신자집회를 국민의회라고 타협하고 우상 앞에 무릎꿇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통의 50년 세월이 흘렀다! 이제 회심이다! 우상과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질이 느껴지지 않는가! 복한 지 하교회의 형제들은 얼마나 자유를 되찾을 날을 위해 하늘의 주께 기도하였을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은 죄를 토하고 가슴을 찢는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었으리라!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그대로 남겨 두었는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말씀(주의) 우상’과 하나님을 경여어 섬길 수 없다? 고 말하시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가! 기독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통일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도록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죄로 물든 패역한 인간을 진정으로 하나되게 하기 때문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1:14).

2000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18일 (주일)	15:00~15:50 16:00~16:50	기독교교인 (김진식 목사)	교육관 407호	구원론 (이종대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자 (이종대 목사)	교육관 314호
6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 (지혜 찬양예배, 분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6월의 김성관 목사 설교 제목 및 본문

6월의 주요행사

일시	예배	본문	제목
6월 4일	2:30-5:00	요 16:29-33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
6월 11일 (주일)	3:00-5:00	행 2:41-47	초대교회를 다시 회심하며
6월 18일	1:30-4:00	마 27:22	빌라도의 질문
6월 25일	3:00-5:00	요 11:38	무덤가의 예수님

정기(당회)(7월)
성령강림기념 특별금요집회(9월)
성령강림주일(11월)
정기(지교회)(11월 찬양예배후)
제3차 학습세례식(25일)

Jesus At The Grave

(John 11:38)

"Jesus, once more deeply moved, came to the tomb.
It was a cave with a stone laid across the entrance."

*Jesus' tears show us that
He understands our sorrow. The reason
He came to Lazarus' grave was to
bring him life. What a great news! Other people
cried over Lazarus' death because of loss.
Mary and Martha wept because their only brother
had departed from their earthly lives.
Jesus understood the pain of their hearts.
He understood their suffering
of separation.*

Today is June 25, 2000. Fifty years ago, on June 25, 1950, the Korean War took place. Even though a half century has passed, we still remember the shocking and horrifying circumstances of that time. More than a million people died. Soldiers from other countries came and sacrificed their lives for our peace. Actually, we murdered each other, North against South, in the Korean War. It's not unusual for human beings to fight each other. Throughout human history people have killed other people; nation against nation, family against family, brother against brother, etc. There's no trust because the devil controls this earth. As such, people conclude that death quiets problems. Since no one really knows exactly what happens after death, people view life as vanity of vanity because they don't know the future. In today's message, Jesus is at the grave. What a great title for a sermon! As He stood in front of a large stone that covered the entrance to the tomb of his beloved friend Lazarus, He cried. His spirit was deeply moved within by the anguish of death. What does that mean?

Jesus' tears show us that He understands our sorrow. The reason He

came to Lazarus' grave was to bring him life. What a great news! Other people cried over Lazarus' death because of loss. Mary and Martha wept because their only brother had departed from their earthly lives. Jesus understood the pain of their hearts. He understood their suffering of separation. He was deeply moved within because of the sorrow that sickness and death bring. But life doesn't end there. Jesus told 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see 11:25-26). Amen! But still Jesus shared in their grief because he understands sorrow. He gives us great hope!

We are not left alone in sorrow. Jesus is with us during our darkest hours. He joins us in sorrow. Although many people may gather around us during life's sad moments, they can't help us. But if Jesus is with us, He can help us. When Jesus saw the blind man, He made him see. When Jesus met the lame man, He made him walk. When Jesus found the ten lepers, He cleansed them. When Jesus observes our sorrow, He

comforts our hearts. Never more so did He join with us in suffering than at the cross. There He proved His love. He died for our sin—our death! He joined all suffering and paid the price for our death. Even as He suffered upon the cross, He saved the robber next to him. Amen! Hear these words my friends, Jesus is with us in our suffering and He helps us. Indeed, He lightens the heavy burdens of life.

Whoever hurts will find peace with Jesus. He is the Comforter! He gave us a most blessed hope at the cross. Whenever sorrow fills your hearts, there is a greater joy that overcomes it. Jesus always brings victory. He died and rose again. He's alive! He conquered death! He won and death lost! He's the ultimate winner! He has the power over death! He told the

dead. Jesus gives us the chance to live after death. He gives us eternal hope. When death closes your eyes upon this earth, they can open 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I want Jesus in my life, not only to help me through today, tomorrow, and at my grave, but to be with me through eternity. Don't you?

Our memory of June 25th, the sepa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still today a major dilemma. Let's bring the problem to Jesus. He gives us hope. He gives us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f we practice the Word of God, as it concerned Israel and Judah, "Therefore, return to your God, Observe kindness and justice, And wait for your God continually", we can have victory (Hosea 12:6). If we obey Jesus' call, "Come to Me, all who are

*But it's not just Lazarus
who can come forth from the dead.
Jesus gives us the chance
to live after death. He gives us eternal hope.
When death closes your eyes upon
this earth, they can open 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I want Jesus
in my life, not only to help me through today,
tomorrow, and at my grave, but to be with me
through eternity. Don't you?*

people at Lazarus' grave, "Remove the stone" (see v. 39)! And they did. Then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see v. 43). And he did! Lazarus walked out of his grave. Can you believe it? But it's not just Lazarus who can come forth from

weary and heavy 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we can have peace (Mt. 11:28-30). ■



김성권 목사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게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이유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지 그들의 형제가 세상적인 삶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예수는
그녀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의미

오늘은 2000년 6월 25일입니다. 5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 다. 비록 반세기가 흘러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파병된 군인들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에서 북한은 남한을 적대시하였고, 우리는 서로서로를 죽였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시종일관 인간의 역사에는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족간의 전쟁이 있었고, 가족간의 분쟁이 있었으며, 형제나 형제를 원수 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참된 전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허망함의 극치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예수께서는 무덤가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사 람하던 친구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 는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 앞에서 계십니다. 그가 우셨습니다. 죽음에 가 치오는 고통은 주님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죽음을 이해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게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이유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

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지 그들의 형제가 세상적인 삶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울었습니다. 예수는 그녀들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겪는 이별의 고통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는 질병과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으로 인해 내면에 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1:25,26). 아멘! 그러나 여전히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을 이해하고 계셨기 때 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막아하시고

우리는 슬픔에 홀로 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절망스 러워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은 슬픔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우리를 넘어서 더욱 확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 먼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그 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보실 때, 그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덤가의 예수님

(요11: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달리는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죽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의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친구들이여, 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참으로 그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누구든지 애도하는 자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가장 축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것을 이기는 커다란 기쁨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권세에 의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게 될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향해 바라는 것은 단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무덤가에서 나를 도울 것 것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예수, 죽음을 이기신 평강의 왕

남과 북의 이별이라는 6월 25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된 난관입니다. 예수께 고통스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라엘과 유다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밀려오는 죽음의 권세에 의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게 될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향해 바라는 것은 단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무덤가에서 나를 도울 것 것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이 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셨고 죽음의 권세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43절). 그리고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호12:6). 만일 우리가 예수의 부름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단의 아픔이 아닌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고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울이라 하시니라"(마11:28-30)

LMTC훈련생 일박수련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10 일 까 지 LMTC훈련생 67명은 훈련의 일환으로 일박수련회와 더불어 역사의 현장인 선교지를 탐방하였다.

우리가 먼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군에 자리 잡고 있는 총회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이하 GMS)였다. GMS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선교사 파송기관으로 교구 조속에서 선교의 특성을 부각시켜 만든 국제적인 선교기관이다. 우리교회 LMTC 또한 GMS의 강남지부에서 선교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GMS는 우리나라가 선교를 시작한 지 9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52지부에서 85개 국가의 수백 족속 가운데 9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명실상부 세계교회의 선교주도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꿈을 담당하는 선교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선교의 역사속에서 LMTC훈련생들은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을 다짐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기독교 선교 백년사를 배울 수 있는 사건의 발생지인 제암리교회의 순교현장을 탐방하였



과 일련 현병들의 총과 함께 의회 부차별 배움을 당한 후 부차별 문제가 불에 타버린 사건을 말한다.

우리는 제암리교회의 순교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과거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신앙정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LMTC일박수련회와 순교지탐방을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말끝까지 이르러 내 종들이 되리라”(말18:20)와 말씀하신 주님의 최후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날 대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이리라 (윤성철 집사, LMTC117)

3교구 에스도, 루디아 전도회

재활원을 다녀와서

지난 5월30일 3교구 에스도 여전도회와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34명이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성북리에 위치하여 장애인 친구들과 노인들을 섬기는 남사람 선교재활원을 다녀왔다. 남명구 목사님과 지체 장애를 가진 몇몇분들이 모여서 61명의 장애인 또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1992년부터 농가주막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육하며 11년동안 남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신다고 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6년동안 친히 포천에 가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동목욕봉사를 하신다고 하셨다. 오랫동안 정이 든 노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분들을 많다고 한다. 또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부부도 계셨다. 남명구 집사는 1급 시력장애인이라 사물을 잘 볼 수 없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보수공사를 도맡아 하시고 양다리가 소아마비인 부인 집사님은 그 많은 가족을 위해 주중에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다.

남명구 목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총회교회 목회자 세미나에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충언으로 기도로 물결로 남사람 선교회를 후원하는 우리 교회와 예수님께 감사를 전하셨다. 또 그곳에는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애덕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재해물이라고 하셨다.

남사람 재해물과 예배를 드린 후에 준비해간 점심을 배움계곡에서 먹고 친교시간을 가진후 장애를 가진 그들보다 가진 것, 받은 것 많은 우리는 감사치 못하는 마음의 장애를 회개하고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행은 적분 충성하기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교회로 돌아왔다.

(탄계선 집사)

제1기 충헌 이·미용 교육을 마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하며”

임 통 계 (집사, 새가족부 교사)

‘충헌 이·미용 교육생 제1기’가 3개월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던 6월8일, 21명의 교육생들은 마지막 실습을 통해 재정리시키는 강사에게 여러가지 질문과 시선들이 머리에 쏟아져 내리자 않았다. 수료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실습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감사가 조용히 밀려왔다. 교육에 동참하기를 원하던 주와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로 향하던 나의 마음은 앞으로 남은 삶에서 이·미용을 통한 전도의 사명을 실천했으면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특히 외신부의 낮은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서로의 기쁨과 감사가 되리라. 지금 생 각해도 이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유년시절은 손자들에게 모델링을 주시면서 실습을 하였고, 남편의 머리를 깎다가 예상 밖의 손절이 되자 손에 딸이 베이더라는 집사님, 자녀에게 처음으로 카마를 실습하자 시간이 오래 걸려 다음엔 하지 않겠다 하는 볼레비를 들었다는 집사님 등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요 경건이 되리라.

주위의 많은 집사님들이 이번 교육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셨다. 나의 감사가 있기에 이곳이 더불어 감사를 토해낼 수 있는 이곳이 되고자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머리로 떠올려 본다. 이왕이면 이웃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고 싶어 열심히 기술을 나누며 익



히고자 한다. 현재 이·미용전도회는 지역 이웃 사람을 위한 복지단의 활동, 외신부와 에마다부를 위한 봉사, 150여명의 결식자를 위한 금호동 신암교회의 봉사대 참여, 봉천동 청소년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봉사, 둔촌동 노인정의 활동, 각 교구 전도대의 활동 등을 통해 헌신하고 있다. 한알의 밀알이 썩어 썩어 나고 열매를 맺듯이 그동안 배운 시간과 노력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일 귀한 사역이 될것을 확신한다.

나문자 친교를 없앴어요

나무의 꿈

백 명 자 (집사, 청년2부 교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자란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간단 말기로 복수가 차오르고 얼굴은 누렇게 변하고 기다란 눈만 살아 있는 50대 아저씨를 만났다. 얼마나 걱정인지,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면서 우리를 당혹케 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복설에 들리니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린 중 마음문이 열리셨다. 회개는 눈물과 함께 흘려졌다. 부모님 때문에 먼저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의 약함을 내놓고 우실 때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러나 얼마뒤에 들리니 하나님 나라로 가신 아저씨, 허리뼈가 휘어져 수술했는데 재빨리 재수술해야 하던데 재주로서 8은 8째리 도영이, 어머니가 없어 할 미나기 키우시는데 처음에는 방해를 하겠지만 어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하게 웃으며 회개하고 가고 기도도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시고 손주를 교회로 보내시켰다는 말이었다.

얼마 전에 임교새같은 70세 노부부를 만났다. 위암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계속 주물러 주시면서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한숨을 쉬던 할머니께,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다고 빨리 천국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제사 때문



에 할아버지께서는 거부하셨다. 그 다음에 가서 293장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교회다니셨다가 마음이 생기실 때 그때 제사를 그만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다.

방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한 것은 우리의 눈물의 수고에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생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한 분의 것이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때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지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 하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할 것도 내색할 것도 없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것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전도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다. 불신가족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 “하나님, 일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도와주소서.”

농촌전도를 다녀와서

성지 현 (집사, 15교구)



5월30일 고추 모 옮겨 심기와 모대기가 끝난 농촌사역에 맞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해 새로 지원 교회로 인연을 맺은 충북 증평의 동점교회로 향했다. 교구 목사님과 이미용팀, 침술팀, 축호전도팀, 봉사팀으로 완벽한 준비를 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주님의 임의 소일반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여 뭇을 새라 7시가 되기 전부터 모여든 지체들...10시가 조금 남은 시간에 패랭이꽃이 예쁘게 어우러져 편, 예쁜 꽃을 심어 작은 마당을 꾸민 동점교회에 도착했다. 대대적인 그곳 목사님의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배후 불려온 주민들로 인해서 손에 쥐가 나도록 커파를 하며 피미를 하는 중에도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방편봉사로 귀한 결심을 이끌어 낸 이미용팀, 친절하게 건강상태를 물으며 노련한 솜씨로 침술을 하며 각자에게 사용된 침구를 각자 보관케 하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침술팀, 각 팀의 열심히 역활을 감당할 때 준비해 간 재료로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하여 60여명의 주민들과 봉사자들에게 점심과 간식을 대접한 봉사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축호전도팀은 준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오전과 오후에 100여가구를 다녔는데 농촌의 노령화로 시간이 정해진 느림을 주는 모습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따름에 따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할 때 중창도 특유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 그러, 알았나니, 바쁘네 어여 기뻐" 하는 대답들... 문맹으로 인한 자존심으로 교회출석을 망설이는 분들, 특별히 기복적으로 믿음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정해 놓은 일정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서 일꾼이 없는, 바라보는 믿음의 모델이 없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없는 농촌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 김진식 목사님의 센스있게 남쪽 큰절을 드리는 인사와 잔과잔과나 복음의 선포로 결실을 이끌어 내신 능력있는 전도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66명의 주민과 7명의 결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지원 교회에 대한 도시 교회의 역활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떠나는 시간 내내헤지기 쉬운 농촌교회의 생활속에 활력을 준, 믿음 안에서 사랑의 분을 보여준, 귀한 시간이었음을 감사하는 그곳 목사님의 인사와 많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에게 본이되고 아낌없는 감동을 준 뜻밖한 하루였음을 서로 칭찬하며 서둘러 향했다.

핀지발레이

스리랑카 선생님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쁜 일만 하면 저를 감사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공장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조금은 사람이 싫어진 적도 있지만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알고 좋은 사람들 만난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영혼인지 몰라요, 또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저의 나라말을 공부하고 또 말로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고맙고 재미있는지, 저희들은 고맙고 감사하 뿐입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과 전도하러 갔을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막 피하고 싫어할 때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마음은 착한데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꼭 저희와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되길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교회 사람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외설부 스리랑카팀 발라가)

성령강림 금요 집회를 준비하며

최명환 (장로, 7교구장)

지난 6월 9일 성령강림 금요집회시에 성령강림 순서를 맡게 되었을 때 분량이 부담스러운 에스겔 37장을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려 했지만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있었기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드럽게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나는 낭독 연습을 할 때마다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인간의 욕심이 성령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애행 연습 중에서도 많이 실수하며 틀리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읽기를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느꼈수 있었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면에 감동을 주셨습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알게 하였고, 마른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생기가 뼈에 들어서는 큰 군대를 이루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살게 할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영이 내속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움이 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마른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헌납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할 줄 믿습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해가 어느 사이에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결심했던 그 모든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한해의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낙담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성한 청년인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만 결코 세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않습니다. 자꾸만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세상인 우리를 향하여 자꾸만 손을 뻗어서 넘어드리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화하는 가운데 세상을 뒤쫓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담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감각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병들어가고 어두워져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7).

하나님께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복하는 심령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지금처럼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었습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시편 51편은 내가 변해야 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집실)

지체들 소식

청년부

석춘호수 노방전도

6월 24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석춘호수에서 전도대회를 갖는다. 이번 전도대회는 청년들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고 석춘호수에 나온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은 정해진 시각에 집결, 찬양, 일대일 전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청년부 통신원)

7교구

바울전도회 전도집회



지난 5일 강동구 고덕2동 동명그린공원에서 강동구 거주 개인역시 기사들을 모신 전도집회를 하였다. 김병태 목사의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 '교회를 초청'의 설교를 통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총 40명이 참석하였고 6명의 결신자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이 되었다.

(박대근 통신원)

사랑부

지도 구역자 인사

지난주 사랑부에서는 구역자 인사일이 있었습니다. 사랑부에 오신 후 많은 일들을 해 주셨던 김동석 목사님께서 사랑부를 떠나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경목 목사님께서 사랑부에 부임하였습니다. 떠나고 새로 부임하시는 두 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인혜정 통신원)

권사회

천국잔치에 초대합니다

800여명의 충현의 권사님들이여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들의 심령들과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위로받으며 잠자던 심령들은 깨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모임에 초대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육이 아울러 만족을 느끼도록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번 잔치에 초대된 권사님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령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권사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6월 26일(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장소: 길원리들

결혼준비교실

- ♥ 월 시: 2000년 7월 2일(주일)부터
매주일 오전11시~12시30분
- ♥ 강의기간: 6주
- ♥ 강의장소: 신촌가정부설(교육관 201호)
- ♥ 참가대상: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
- ♥ 그룹형태: 그룹 전체가 모여 주제강의를 듣습니다.
필요시 커플 혹은 개인상담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커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 ♥ 등록안내: 552-8200(교한429)
- 접수기간: 6월11일 ~ 7월2일
- 접수처: 매주일 신촌가정부설
(교육관203호)
- 선착순 20명으로 제한

나를 바꾼 만나다

“환난당한 모든자와 빛진자와
마음이 원통한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김은 경 (대학부 교사)

“그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랄굴로 도망하매...환난당한 모든자와 빛진자와 마음이 원통한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그와 함께한자가 사백명가량이더라”(삼상22:1-2)

지금 나는 그야말로 땅에서 주님을 배우고 있다. 모세와 바울의 땅아, 다윗의 아들랄굴로 표현되는 인내와 기다림의 기간...자기백성 200-300만명을 대제국 예루살렘과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어 40년을 가슴에 품어온 모세의 은유함의 훈련장은 40년의 광야생활이었고 바울 역시 광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다진 후 모진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수년전 나는 한국교회와 성령운동에 관한 행사에서 홍보와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행사 자체 보다는 1906년 영국 웨일즈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비전을 갖고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엄마가 쓰러져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6남매 중 맏인 나는 늘 결혼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로 부모님의 근심덩어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난 죄책감 때문에 병간호자의 일이라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었고(나중에 이것은 옳은 것이 되었다.) 그후 엄마는 힘든 시간을 기도로서 이기며 거의 회복되었다. 문제는 나였는데 모던체에서 훈련을 받은 후 ‘믿음선교(faith mission)’의 삶에 나를 몰고 사역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중도에 발병한 베타타라는 병이었는데 어떤 작은 병도 제대로 이겨낼 수 없는 면역기능의 이상과 심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계속 위로하셨다.(창12:1-3, 시27:9, 욥23:10, 사60:1-6, 렘15:10, 계22:1-5 등) 이때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이 바로 성경의 다윗이었다. 그가 장인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의 절경에도 감사와 찬송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지도력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 사무엘상 22장1-2절을 보면 다윗이 목숨부지하기 위해 숨어들었던 아들랄굴까지 환난당한 자, 빛진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이고, 그는 그들을 포용하여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 두어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왕위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자신이 겪은 온갖 수치감, 모멸감,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앙으로 삭이며 갖게된 사람에 대한 넓은 사랑과 이해하는 맘때문이었을 것이다. 행장 능력과 정치적 지도력을 갖춘 부하를 말한단다 사울과 비교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나의 생각이었다.

내 몸은 매우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과 이해가 없음을 허우적거린다. 나의 바램이 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땅에 다져처럼 견고하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는 땅아에 서있다.

만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고싶은 주완아

훈련소 생활에서 틈내어 써 보낸 너의 첫편지를 반갑게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어보았다. 추운 날씨에 병영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네가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되는구나. 너의 훈련소 입대일이 1월이었! 한겨울 날씨에 작막 하매가 느껴지는 훈련소에 너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허전하고 눈물이 나옴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너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완아가 사나아다운 군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에 엄마는 한시름 놓았다. 자랑스런 주완아, 네가 어려운 훈련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의 직분까지 맡았구나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그러나 엄마는 네가 학교 다닐 때 모이스카무트 활동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훈련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훈련소의 병영생활이 이제까지 생활해온 집 그리고 학교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여러 지역에서 입대해 온 또래의 훈련병 동기들과 새로운 만남을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자식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병영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사랑하는 주완아, 교회에서 너의 군입대기념 선물로 포켓용 성경책을 주셨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게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4:10). 이 성경말씀을 너의 군대생활 중 항상 기억하며 사랑하길 바란다. 엄마도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너를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할 몸으로 색색한 군인으로 성장하길 추임에 바친다. 편지 또 쓰게.

2000년 6월15일

주완아를 사랑하는 엄마가

